



한국의 사례 ②
대학도서관의 지역사회 개방

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 세계여성문학관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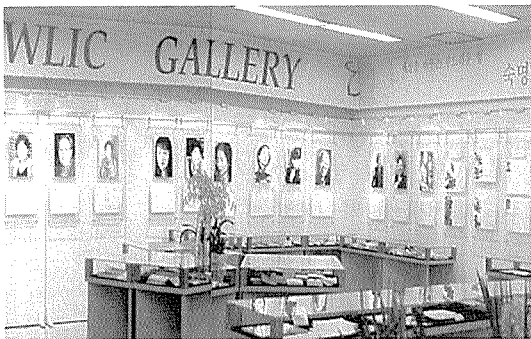
박경희*

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에 위치한 세계여성문학관은 대학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작가들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여성문호들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세계여성문학관은 여성문학 전반에 걸친 정보제공과 여성문학 발전이라는 취지 하에 1998년부터 준비작업을 시작하여 2000년 11월 30일에 개관한 도서관 특화사업이다.

현재 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 3층 303호에 전시공간 및 비도서자료, 열람공간 등 170 여평을 확보하고 있으며, 학생들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여성작가의 순수 문학 창작물 및 연구서를 전세계적으로 망라하여 수집·비치하고,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여성문학 정보를 웹 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현재 비치되어 있는 자료로는 국내·외 단행본 25,721권, 연속간행물 8종, 비도서자료(비디오 사운드카세트테이프, 컴퓨터 파일) 144점, 웹 DB(Literature Resource Center) 1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적극적인 기증의뢰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인들에게 자료수증을 받고 있다.

여러 작가들의 사진과 작품들이 전시되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성문학 관련 자료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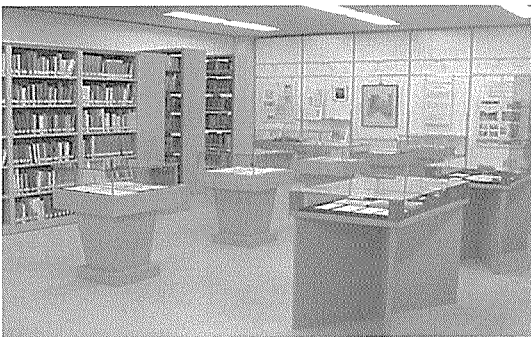


〈갤러리 : 대표여성문인전〉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정보팀 사서, manofgod@sookmyung.ac.kr

문학 분야의 희귀본을 볼 수 있으며 갤러리 한편에는 원고, 사진, 기호품, 애장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개관 첫 해인 2000년도에는 세계여성문인들의 작품을 언어권별로 6개국의 언어권으로 나누어 국가별 대표여성 문인들을 선정하여 그들의 초판본 및 번역본을 비롯한 작품을 전시하고 문인들을 소개하였다. 정부인 안동장씨의 실기·신사임당 필첩·박완서·박경리(한국)·요시모토 바나나·유미리(일본), 버지니아 울프(영미권), 마가렛 뒤라스(불어권) 등 여성작가 작품전시가 되어 있고, 특히 외국에서 번역되어 출간된 박완서의 번역작품집과 박경리의 대표작품이 실린 책 등 흔치 않은 자료들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또한 본교 고전자료실 소장 여성문학 자료 및 숙명여자대학교 동문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였으며 매년 노벨문학상 수상 여성문인전을 비롯한 테마가 있는 기획전시를 통하여 정보박물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세계여성문학관은 1993년 타개한 소설가 한무숙코너를 마련하여 한무숙 재단에서 기증한 5천여권의 기증도서와 작가의 일상적인 흔적을 볼 수 있는 성경책·서예도구·안경 등 한무숙의 각종 유물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



〈한무숙 코너〉

문학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 각종 문학행사와 문학관련 전시회가 매년 열리고 있고, 2002년 10월에는 문학과 체험이라는 주제로 박완서 초청강연회가 열려 많은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여성문학작가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여 1차적으로 여성문인사전(한국편) 출판 등 정보의 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영역별로 전 세계로 확대하여 총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여성문인사전에는 인명정보·작품정보·참고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문학 분야 연구업적을 집대성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대학도서관의 차별화·특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일반인들의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작가들과의 만남 계획의 일환으로 여성문인 인터뷰 및 동영상 정보 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박지원·조경희·추은희 등의 작가들을 동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세계여성문학관은 문학창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집약적인 문학의 공간으로, 문학적인 도움을 주고 문학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 뿐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문학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끌어 나가고 여러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